

## 『옥추경』 48신장의 변천과 도상

구 중 회

공주대학교 · 명예교수

- |                           |                  |
|---------------------------|------------------|
| I. 서론                     | IV. 48신장의 성격과 도상 |
| II. 『옥추경』에 대한 배경 지식       | V. 결론            |
| III. 『옥추경』의 파본 전승과 재생산 양상 |                  |

### I. 서론

『옥추경(玉樞經)』은 원래 중국 도교의 경전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재생산되면서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의 2권짜리가 우리나라의 3권짜리가 되면서, 재생산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44신장이 48신장으로 변모되기도 하였다.

『옥추경』은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에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신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계룡산에만도 굿당이 100여개 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경문이 『옥추경』이라는 데서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이 조선후기와 일제 강점기의 민족종교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권속의 48신장의 변천과 성격을

규명하고 도상을 살펴보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만 전개의 논리상 현재 유통되는 『옥추경』이 파본이므로 결정본을 결정한 뒤 작업이 진행되었다.

## Ⅱ. 『옥추경』에 대한 배경 지식

일반인들은 대부분 『옥추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더욱이나 그 중심 본존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따라서 『옥추경』과 집주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밟아야 논의의 전개가 수월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1. 책의 이름에 대하여

『옥추경』은 줄여서 부르는 책 이름이다. 원문 텍스트(Text) 이름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추보경(九天應援雷聲普化天尊 玉樞寶經)』 또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설옥추보경(九天應援雷聲普化天尊 說玉樞寶經)』으로 조금 길다. 이들 유통되는 책들은 대부분 집주 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구천응원’이 빠진 채 ‘뇌성보화천존’이라고 불렀다가 1888년 즉 계룡산 본이 나오면서 ‘구천응원’이 첨가되었다.

19세기 이후 『옥추경』은 보통 『옥추보경(玉樞寶經)』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 대부분이다. ‘보(寶)’는 진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신앙적 의미가 내포된 의미라고 생각된다. 지극히 고귀[至高]하고, 지극히 신령[至靈]하며 지극히 미묘[至妙]하다(『寶經後序 1』)고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름의 『옥추경』으로는 17세기에 전라북도 진안 반룡사에서 김홍무(金弘武)가 펴낸 『구천옥추경(九天玉樞經)』이다. 위의 『옥추경』들이 한문 표기인 점과 비교할 때 이 책은 국한문 표기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의 『옥추경』은 몇 종류가 있다. 원본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설옥추보경』을 비롯하여 주해본이 있다. 다만 복장요(復莊姚)가 주해하고 후손 요장(姚鏞)이 교열한 『옥추경약(玉樞經籥)』과 황성서(黃誠恕)가 참고하여 교정한 『옥추경찬(玉樞經贊)』 등이 불만하다.

연구서로는 연구자의 『옥추경 연구』(2006)가 있다.

## 2.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의미에 대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추보경 집주(九天應援雷聲普化天尊 玉樞寶經 集注)』를 따라가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한다.

‘구천’은 ‘아홉 개의 하늘’이란 뜻이다. 동서남북[4방] 등의 4개의 하늘과 남동[옛날 방식으로는 동남]<sup>1)</sup>과 남서[같은 의미로 서남], 북서[서북]과 북동[동북: 4유] 등의 4 개의 하늘, 그리고 가운데 1개의 하늘 등이다.

아홉 개의 하늘은 ‘천로지망(天羅地網)’ 즉 하늘이 널리 퍼져 있고 땅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보화천존의 심관[巡幸]이 따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홉 개 하늘은 산하에 작은 36개 하늘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였다. 집행 과정은 동남의 아홉 기운[九氣]으로 36번개 문[雷門]에 명령이 가능하며 여러 관아 사무소[司府院]의 결제된 문서[官印]를

1) 동남과 서남, 서북과 동북은 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향이고 남동과 남서, 북서와 북동은 지구 자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향이다. 오늘날 뒤의 것으로 쓰는 것은 지구의 자장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정하는 방식이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오해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접수하여 착한 것은 살리고 악한 것은 죽이되 인간 정서의 순리에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이것이 아홉 하늘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응원’이란 이러한 아홉 하늘의 심판이 원시(元始)의 일기(一氣)에서 갈려 나온 실체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1·2> 계룡산본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왼쪽)  
중국 사묘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오른쪽)

‘뇌(雷)와 성(聲: 번개와 우레)은 두 단어의 결합이다.

번개[雷]는 음양의 두 기운이 결합하여 성립된다. 큰 번개와 작은 번개[雷霆]가 있고 그 종류로는 다섯 번개 부서[오뢰(五雷): 하늘(天), 땅(地), 물(水), 용(龍), 흙(社令)]나 또는 열 번개 부서[십뢰(十雷): 옥추(玉樞), 신소(神霄), 대동(大洞), 선도(仙都), 북극(北極), 태을(太乙), 자부(紫府), 옥진(玉晨), 태소(太素), 태극(太極)] 또는 삼십육 번개 부서[삼십육뢰(三十六雷): 옥추(玉樞), 옥부(玉府), 옥주(玉柱), 삼청대동(上淸大洞), 화륜(火輪), 관두(灌斗), 풍화(風火), 비첩(飛捷), 북극(北極), 자미선추(紫微璿樞), 신소(神霄) … 대초두추(大楚斗樞), 옥진(玉晨)]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그 번개의 법[雷法]은 일흔 한 개 계층의

하늘과 땅[七十一階 天地]의 일들에 대하여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으로 만물이 태어나게 된다.

‘번개 소리’[雷聲]는 하늘과 땅의 인자한 소리이다. 춘분 5일부터 시작되는 번개 소리는 하늘의 명령이고 청취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없으면 뇌정(雷霆)은 시행되지 않는다. 땅에서 소리가 없으면 풀과 나무가 썩어 나오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소리가 없으면 맑고 흐림[淸濁]이 밝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크고 작은 번개 소리는 신체의 근본이며 음양 원래의 기운(元氣)이 되는 것이다.

‘보화천존’은 한 달 사계절 내내 삼계(三界: 欲界, 色界, 無色界)<sup>2)</sup>와 구주만국(九州萬國)을 날아다니면서 착한 것은 상을 주고 허물은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보화천존의 정신은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이다’이다. 발원하는 것이 광대하고 보화천존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모습[化形]이 여러 중생들에게 도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내 몸은 당연히 보화천존의 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은 대승불교의 보살도이고 민족종교의 소위 ‘인내천’ 신앙과 관련이 될 것이다.

### Ⅲ. 『옥추경』의 파본 전승과 재생산의 양상

#### 1. 파본 전승의 과정과 진실

2) 삼계 내에는 28하늘[천]과 그 외 8 하늘이 있다. 욕계는 대황황증천 등 6 하늘이 있는데 속세에 있을 때 살생, 도적질, 음행 등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수명이 1만년이다. 색계는 허무월형천 등 18 하늘이 있는데, 속세에서 욕심내고 성내지 [탐진] 않은 사람이 사는 세계로 수명이 1억만년이다. 무색계는 호·정·소·도 등 4 하늘이 있는데, 속세에 있을 때 색계(rūpa-dhatu), 무색계(arūpya-dhatu)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옥추경』은 인쇄 과정에서 잘못이 저질러진 ‘과본’이다. 그동안 몇 번의 보강이 있었지만, 결국 결정본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간행되었다. 이러한 인쇄상의 오류는 조선후기와 일제 강점기 사회가 혼란한 와중에서 생긴 일이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70년 ‘전라도 동북지<sup>3)</sup> 무등산 안심사’에서 처음 간행될 때, 과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간행되었다. 그러다가 곧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변상<sup>4)</sup> 초장 및 경 1면(장)을 잃어서 새기지 못하였다.”는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해에 수정본을 내게 되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몇 줄(행)이 아니라 목판 1면(장)을 말한다. 보통 목판 1면은 본문이 10줄(행)이고 주해인 지문이 20줄(행)이다. 따라서 1면이 빠졌다면 이들 1면이 통째로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그런데 수정본에서 보강된 것은 변상의 경우 3면이었다. 초장과 중간경의 경변이 그것이었다. 다음과 같다.

3) 이 중(2001) 『도교통천복지』에서 10통천-36소통천-72복지-별유통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옥추경』의 간행자들은 무등산을 ‘복지와 같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므로 『옥추경』을 찍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1570년은 선조 3년이다. 이해 5월 7일 옥당[홍문관]에서 올린 차자를 보면, 많은 천재와 질병이 줄을 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하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와 아름다운 징조가 응하지 않는 이유와 수재(水災), 한재(旱災), 여역(癘疫), 일성(日星), 상박(霜雹) 등의 변이 잇달아 발생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역사적 현실에서 『옥추경』을 ‘복지’에서 간행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여기서 ‘변상’은 신장 그림을 말한다. 불교에서 ‘변상’은 정도의 모양이나 지옥의 모양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물건에서 다른 물건을 내거나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식(唯識)의 소변(所變)이라고 하면, 일식(一識)부터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변상’은 아홉 하늘[구천]의 일이라고 간주한 듯하다.

5) 이러한 내용은 구종회(2006) 『옥추경 연구』 제6장 「옥추경과 출판 문화」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1570년 초간본과 수정본의 차이는 ‘안심사 초간본과 수정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1면 (신장) 대법천사와 신공묘제 허진군  
2면 경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은하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장면



<그림 3·4> 안심사 수정본 첫 면(장)에 보강된 신장 그림



<그림 5·6> 수정본의 경변 즉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뇌법을 시행하는 광경

경문은 목판 7면(장)이 바뀌고 1판은 주해 10줄이 보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옥청천중장: 주해 1면[장]... 3면이 수정<sup>6)</sup>
- 2 도이성입장: 주해 2면[장]

- 3 학도회신장 : 주해 5줄[10줄의 반]
- 4 구순설문장 : 본문과 주해 포함 1면[본문 2줄과 주해 12줄과 양토신살금기장 본문 2줄]
- 5 양토신살금기장 : 본문과 주해 1면[본문 6줄, 주해 8줄]

연구자가 입수한 수정본에는 초간본이 있는 보행장 상 찬왈[2줄]과 하 본문[4줄]과 주해 10줄 등의 1면과 보행장 하 주해 8줄과 본문 6줄 등의 1면 즉 2면[장]이 빠져 있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수정본에서 보강된 것인데, 이 책이 파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빼놓기로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1570년 안심사 초간본과 수정본을 합할 때 비교적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과 주해 지문은 거의 구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현사본 『옥추경』에서 다시 불거졌다. 안심사 초간본에서 범한 재옥천중장의 주해 23줄이 빠진 것이다. 이 누락 부분은 오늘날 유통되는 『옥추경』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 주해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쪽]7)

註曰 在者其時也天尊遊於玉清天中與十方諸  
 天帝君宴會於玉虛殿館紫極之房是時  
 天尊檢觀太幽碧瑤之箱稽考洞微明晨之紀交頭  
 接耳者皆諸天君列坐有次聖聖相傳共聽微密玄  
 玄之言彼時諸天帝君亦各有衆多家臣左右踧踖  
 恭謹侍焉天尊安然高座朗誦洞章諸天帝君深  
 有所悟各各起座長吟步虛讚詠天尊之教綵女  
 仙姝散花盤繞於天尊之座復請天尊往詣翠

6) 『옥추경』 목판은 안심사본이나 보현사본 등의 원래의 판형은 변화되지 않았다. 보충되는 부분만 맞추어 채웠던 것이다. 3면[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재옥천중장 본문 1줄과 주왈, 의왈, 석왈 등 18줄 등의 1면[장], 석왈 나머지 5줄과 찬왈 3줄, 뇌사본계 백장 본문 6줄 등의 1면[장], 나머지 본문 4줄 등의 1면[장] 등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뇌사본계백장 마지막 본문 뒤의 주왈은 원래대로 돌아가 줄은 고쳐지지 않았다.

7) [a쪽]에서 ‘a’는 한 장의 앞 쪽을 말한다. 뒤 쪽은 ‘b’로 표시했다. 이하는 모두 같다.



宮之七寶層臺 欲望天尊大演妙法也層臺卽是<sup>8)</sup>  
 龍鳳之座有七級皆珍寶飾之故名七寶層臺天尊  
 駕輿白鶴師于威儀節仗引導其前青龍白虎六甲  
 六丁侍衛左右九天仙女十二<sup>9)</sup>眞陳奏仙樂諸天大  
 帝神君神王 太極真人副從鳳輦龍輿經遊翠宮仙  
 仗節鉞龍旂鸞輅飄飄太空集聚寶臺  
 義曰 天尊<sup>10)</sup>是時 游玉清駐寶臺大闡玄文廣宣  
 要語天人左右皆得開心受化而功行又主<sup>11)</sup>也  
 釋曰 是時我天尊在自居之闕闕中有九光之殿  
 館閣房位闕法考書欲化十方天真帝君明

[b쪽] 釋曰

其大道於是天真帝君被德服膺不知舞蹈天尊  
 大悅欲遊外宮諸天群仙左右前後仗越排旗引我  
 天尊駐鸞輅於翠宮翠官者玉清之行宮也雷師心  
 懷奏疑無由以陳行值我天尊登寶臺手舉金光  
 明之如意俯察萬類  
 讚曰 故把玄玄一竅開十方三界應時來瓊書細  
 闕存元炁寶笈重宣養本胎侍女交頭心自會  
 陪臣踧蹌意能裁須曳演教天花舞鸞鳳飄飄七寶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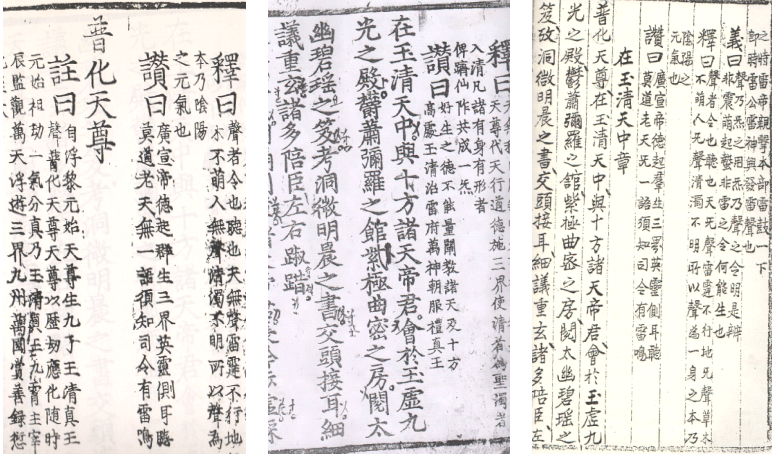
이 부분은 『옥추경』 연구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다. 1888년 계룡산본은 보화천존의 주해 17줄로 이를 속이고 있다. 이러한 속임수는 1923년 최병두가 낸 『상밀주해 옥추보경』에 그대로 계승되어 『옥추경』의 원본으로 오해하기에 이르렀다.

『옥추경』의 왜곡은 누락된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피’를 쓰는 데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재옥청천중장의 주해가 없다는 것은 『옥추경』이 ‘파본’이라는 것을 금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를 위장하기 위하

8) ‘層臺卽是龍鳳之座’에서 정통도장본에는 ‘是’가 빠져 있다.  
 9) ‘■’와 같이 ‘먹자’로 처리되어 있는데, 정통도장본에는 ‘계(溪)’자로 판각되어 있다.  
 10) 정통도장본에는 천존이 없다.  
 11) ‘주(主)’가 백발(白髮)로 판각되어 있으나, 정통도장본에는 ‘주’ 대신하여 ‘숭(崇)’자로 판각되어 있다.

여 뇌자장의 ‘보화천존’을 재옥청천중장으로 옮긴 뒤 그 주해를 배치 함으로써 형식을 갖추려고 했던 것이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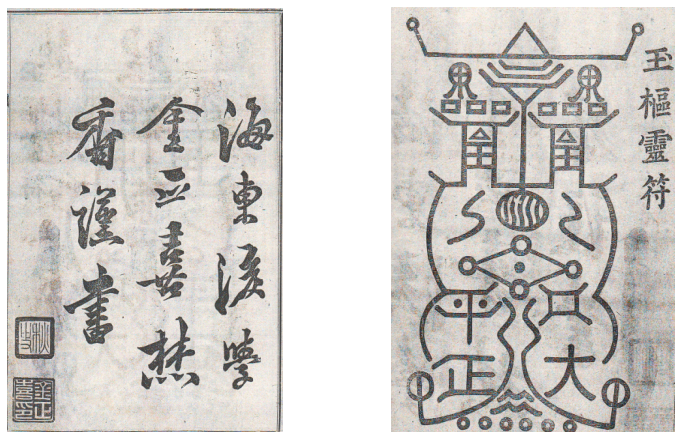
<그림 7·8·9> 안심사 수정본(왼쪽), 가운데는 보현사본, 오른쪽은 계룡산본 ‘보화천존’의 배열 위치를 비교하면 그 진실이 금방 밝혀진다.

오른쪽 그림은 ‘보화천존’을 뇌자장에 배치한 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그림에 등장하는 ‘석왕’과 ‘찬왕’은 ‘보화천존’의 그것[주해]임을 보여 준다. 왼쪽의 그림은 ‘보화천존’을 재옥청천중장 앞에다가 가져다 놓은 것을 보여준다. 원전을 위장하여 왜곡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통되는 『옥추경』의 비극이고 왜곡의 현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23년 활자본을 간행한 최병두는 ‘강왕’을 덧붙이고 김정희(1786~1856)가 다시 판을 새긴 것(중간)으로 그의 글자들을 모아 『상밀주해 옥추보경』에 소개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옥추령부’라는 부적을 새로 그려 넣기도 하고 ‘신장퇴문’을 넣어 경을 읽는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 『옥추경』의 재생산이고 원래의 『옥추경』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상이 『옥추경』 원본의 왜곡과 혼란의 전모이다.



<그림 10·11> 왼쪽은 김정희가 중간했다는 서문의 맨 끝부분이고, 오른쪽은 ‘대정’ 연간에 최병두가 만든 것이다.

왼쪽 그림은 김정희가 중간했다고 짐자한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오른쪽 그림은 새로이 최병두가 만든 부적[부록]이다.

## 2. 재생산의 양상

오늘날 신명계의 현장에서 활용되는 『옥추경』의 개별 경문들은 원전 『옥추경』과 다른 유사 경문들이 적지 않다.

『옥추경』의 맨 앞은 다음과 같은 ‘의문(儀文)’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 의문은 신명계에서 ‘초경(初經)’이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뿐더러 이 외는 또 다른 모습 등으로 확산되면서 『옥추경』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예문] 1

범송경자 절수재계 엄정의관 정심정기 고치연음 연후낭송  
신물경만 교담접어 무재단속 엄염무위 수원축도 자연감응<sup>12)</sup>

[예문] 2

범송경자는 절수재계 엄정의관 정심정기라 고치연음후 낭송차경 실물경반하고 교담접어 무재단속 염념무위하고 소원을 독촉하면 자연히 신령은 감응하나시니라

[예문] 3

- a 범송경자는 절수재계하고 엄정의관하고 정심정기로 고치연음 연후에 낭송신물 경만교담 접어 무재단속 염념무위라도 소원독촉 발원하오면
- b 각위천존 각위칠성 각위산신 각위용왕 각위신장 각위장군 각위보살 각위대신 각위도사 각위대감 각위제석 각위동자 각위선녀 일체 신령님들은 전후좌우로 나열하여 원차강림 내리소서.

[예문] 4

- c 부 옥자(夫玉者)는 천지일월지화(天地日月之精華)이니 만고지대보야(萬古之大寶也)요 추자(樞者)는 음양조화지기축(陰陽造化之機軸)이니 생살지시유야(生殺之始由也)요 경자(經者)는 인도수진지요경(人道修真之要經)이니 봉행지귀감야(奉行之龜鑑也)라 소이명명자(所以命名者)하야 이기지보(以其至貴) 지령지묘야(至靈至妙也)라.
- d 범송경자(凡誦經者)는 절수재계(切須齋戒)하고 엄정의관(嚴整衣冠)하고 증심정기(澄心定氣)하고 고치연음(叩齒演音) 연후낭송(然後朗誦)호대 신물경만(慎物輕慢)하야 교담접어(交談接語)하고 무재단속(務在端肅)하야 염념무위(念念無違)하고 수원도축(隨願禱祝)하면 자연감응(自然感應)하리다.

예문 1은 『옥추경』 원전의 ‘의문’이다. 예문 2는 ‘초경(初經)’이란 이름으로 얼마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예문 3은 a부분이 ‘의문’에 속하고 b부분이 새로 편입되었다. 예문 4 c부분은 『옥추경』의 개별적 의미를 풀이한 주석본에서 따온 것이다. d부분은 의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2) 凡誦經者 切須齋戒 嚴整衣冠 澄心定氣 叩齒演音 然後朗誦 慎物輕慢 交談接語 務在端肅 念念無違 隨願禱祝 自然感應

## [예문] 5

제자 심모성명 항념수도 지재희신 양관천문 보강답두 부찰  
 지리 투지작산 중조인사 봉흉화길오덕강임 삼덕조요 중명  
 정식 세세냉창 통유달명 대대생성 구성위요 삼태시위 상하  
 삼경천존 태청도덕천존 상청령보천존 구천응원뇌성화천존  
 천유탐랑 거문녹존 문곡엽정 무곡과군 좌보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령 현주 정중 자단 뇌뢰 단원 광연 영동 구령 천유  
 허정 옥순 국생 삼태 인유태광 상령 유정 삼정 천인위일성  
 영불이 상수인간 시호인신 연명장생 여천동덕 시여순서 여  
 물회합 강산불로 구주연원 상천입지 무불통지 칼형칼색 무  
 불통명 원보근보 화복울령 여용유성 여형수영 인혜신혜 강  
 몽 감응일여 즉오봉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재옥청진왕울령  
 잉념 대성복두칠원성군 백발홀<sup>13)</sup>

## [예문] 6

천금기 지금기 음양금기 백금기 천시위아부 지시위아모 일  
 월성신위위아 형제태을위아봉우 둔갑신장래조아 권공지  
 래조아 동방청제장군래조아 남방적제장군래조아 서방백제  
 장군래조아 북방흑제장군래조아 중앙황제장군래조아 둔갑  
 장군적각정차지금강신진언 천원지방 하중오행 태을장군지  
 대폐병 당야자사 피야자생 금일출행 불택방소 수구여의 좌  
 청룡피만병 우백호피호랑 남주작피구설 북현무피질병 금당  
 옥당 금귀대덕 사해길상 만복길창 외도비상지도 외검비상  
 지검 구년성지 십년성도 일위검광멸 이휘제귀마멸 삼휘제  
 액소멸 사휘목절사 오휘염귀소멸 천상역제불제신 속거천리  
 속거만리 음급금여울령<sup>14)</sup>

13) 弟子臣某姓名 恒念修道 志在希仙 仰觀天文 步罡躡斗 俯察地理 透地穿山 中照人事 逢凶化吉 五德降臨 三德照曜 鐘鳴鼎食 世世寧昌 通幽達明 代代生成 九星衛鏡 三台侍衛 上下三境 天尊 太清道德天尊 上清靈寶天尊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天有貪狼 巨門 祿存 文曲廉貞 武曲破軍 左輔右弼 九星 人有天生 茂靈 玄珠 正中 子丹 回回 丹圓 光淵 靈童 九靈 天有虛精 六淳 曲生 三台 人有台光 爽靈 幽精 三精 天人爲一星 影不移 常隨人間 侍護人身 延命長生 如天同德 如時順序 如物會合 江山不老 九州延遠 上天入地 無不通知 察形察色 無不通明 遠報近報 禍福災癡 如容有聲 如形隨影 人兮神兮 感應 感應一如 則吾奉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在玉清真王律令 仍念 大聖北斗七元星君 百八詔

14) 天無忌 地無忌 陰陽無忌 百無忌 天是爲我父 地是爲我母 日月星辰是爲我 兄弟太乙是爲我朋友 遁甲將神來助我 權公之神來助我 東方青帝將軍來助我 南方赤帝將軍來助我 西方白帝將軍來助我 北方黑帝將軍來助我 中央黃帝將軍來助我 遁甲將軍赤各(脚)情此知今強神嘖言 天圓地方 何終五行 太乙將軍至大斡兵 當我者死 避我者生 今日出行 不擇方所 所求如意 左青龍避萬病 右白虎避虎狼 南朱雀避口舌 北玄武避疾病 金堂玉

## [예문] 7

천존(天尊)이 언(言)하사대 약혹유인(若或有人)이 치장원행(治裝遠行)에 적도빙간(賊盜騁姦)하며 오병가해(五兵加害)하고 육행즉호랑초역(陸行卽虎狼魍魎)이 마기아(磨其牙)하며 수행즉교룡민타(水行卽蛟龍鼉鼉)가 장기이(張其頤)하고 흑탄뢰(或灘瀨)에 유유왕지혼(有幽枉之魂)하며 흑풍도(或風濤)에 유겁수지회(有劫數之會)하야 전망후화(前亡後化)하며 촉생대사(催生代死)하나니 능어차경(能於此經)에 귀명투성(歸命投誠)하면 고득수륙평강(故得水陸平康)하여 행장(行藏)이 협길(協吉)하리라.

## [내옥추(內玉樞)]

水陸行藏 遠近出入 賊盜人間 五病加害 陸襲虎狼 水侵蛟龍 鼉鼉 灘瀨 游荒之魂 鬲刀(都) 劫囚之鬼 一時 吾奉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清真王 律令(수륙행장 원근출입 적도인간 오병가해 육습호랑 수침교룡민타 탄뢰유황지혼 풍도겁인지귀 일시오봉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청진왕율령) 옥청제도(玉清濟度) 제력(帝力)하야 제천(諸天)에 제열위천존(諸列位天尊)이 감화지공(感化之功)으로 흉신(凶神)은 변위길신(變爲吉神)하고 악신(惡神)은 변위선신(變爲善神)하고 출세위인(出世偉人)하나니 등육견일(登六見日) 무복구사(巫卜求師) 사인평(使人評)하야 출입안정(出入安靜)하리라.

위의 예문 5~7은 원래 『옥추경』에 없는 경문인데 전혀 새로이 편입된 경우이다. 『옥추경』의 원전 진위와는 관계없이 이름만 붙인다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옥추경』은 신명계에서 독송되는 경우는 병을 치료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옥추경』을 읽으면 ‘귀신의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믿음은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삭사(鑿邪)’라는 말이 등장한 이래 널리 알려진 믿음의 하나이다.

堂 金貴大德 四德吉祥 萬福吉昌 畏刀非常之刀 畏劍非常之劍 九年成地 十年成都 一揮劍光滅 二揮諸鬼自滅 三揮災厄消滅 四揮木絕死 五揮染鬼消滅 天上亦諸佛諸神 速去千里 速去萬里 唵急急如律令

## IV. 48신장의 성격과 도상

### 1.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 권속의 48신장론

오늘날처럼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의 48신장이 체계화된 것은 1888년 계룡산본 『옥추보경』부터이다.<sup>15)</sup> 그 이전에는 41신장부터 47신장까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1888년 이후에 48신장론의 체계가 곧바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조선도교사』를 쓴 이능화(1868~1945)조차 48신장을 잘못 이해할 정도였으니 말이다.<sup>16)</sup>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과 다른 천존들[상청영보천존과 대청도덕천존]을 48신장에 포함시킨 것은 신장을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의 권속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48신장 체계가 확립된 것은 공주민속극박물관의 설위설경전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학문적 정리는 구중희(2002) 『충청도 설위설경』이었고, 2006년 『옥추경 연구』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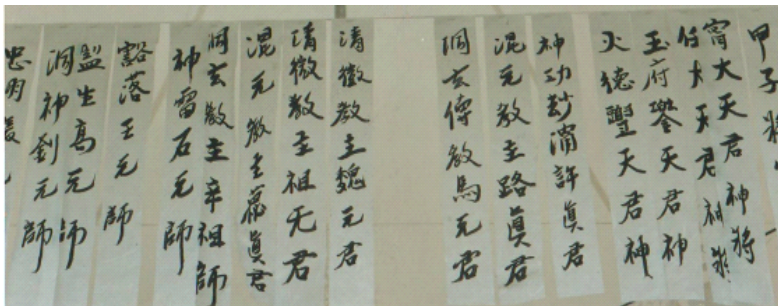
그런데 신장위목을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영대천군**신장**, 임대천군**신장**, 왕부○천군**신**, 화덕○천군**신** 신공묘○허진군, 통현진교 마无君, 청미교주위无君, 청미교주조无君 등 아직은 정비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신장’이나 ‘신’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天君→无君으로 쓰거나 ○ 등은 글자가 아닌 것[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상한 체이다]도 그러하다.<sup>17)</sup>

15) 이 논문을 제출한 뒤, 세미나 과정에서 토론자[박상규·차선근]들은 48신장의 성립이 18세기 묘향산본의 명호 부분에 이미 ‘정양허진군’이 등장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지적은 절반이 옳다. 왜냐하면 묘향산본 신장은 45신장이기 때문이다. 신소전 교종려진선, 영임이대천군, 호구왕고이원수 등은 두 신장이 아니라 한 신장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도상에는 정양허진군이 없음을 물론이다. 중국도교협회부 연구원이며 국제부 부주임인 인즈화(尹志華)가 논문 부록으로 제시한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청대 『옥추보경』 신장도’에도 정양허진군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48신장을 정립한 것은 1888년이라고 본 것이다.

16) 이능화(1868~1945)는 맹인의 독경과정에 나타난 48신장에서 44신장을 제시하였다. 고교당원수, 풍도맹원수, 익평은원수, 규찰왕부수 등이 빠지고 그 대신 삼청 즉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 상청영보천존, 대청도덕천존과 백마소거대장군 등을 포함시켰다.



<그림 12>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제1회 ‘충청도 굿 설위설경 큰 잔치’ 때의 한 과정이다. 2000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충남 공주민속극박물관[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주관으로 열린 행사이다. 당시 바로 옥추경 48신장을 설치하고 설위설경[독경, 앉은거리, 앉은곳]을 하는 광경이다.



<그림 13> 설위설경의 48신장 위목 중 일부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글자의 오류가 보인다. 한자를 몰라서 오는 것도 있고 내용을 몰라서 오는 것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하여튼 48신장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sup>18)</sup>

안심사에서 1570년에 간행한 『옥추경』의 초간본은 신장수가 해경백진인 등의 41위이고 수정본은 대법천사와 신공묘제허진군 등을 보충한 43신장이다. 1736년 보현사본은 또 다시 만법교주, 동화교주, 홍제구천사, 정양허진군 등 4신장으로 더하여 47신장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계룡산본에서 허정장천사를 넣어서 48신장본이 완성된 셈이다.

17) 연구자는 이러한 잘못을 행술자인 범사에게 일일이 지적하여 바르게 쓰도록 하였다. 그런 것이 동기의 하나가 되어 『충청도 설위설경』을 2002년에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18) 구중회, 『옥추경 연구』(서울: 동문선, 2006), pp.67-68.



순위	신장명	안심사 초간본 (1570)		수정본 (1570)		반룡사본 (1612)		보현사본 (1733, 36)		계룡산본 (1888)		비고
		면수	순위	면수	순위	면수	순위	면수	순위	면수	순위	
1	만법교주					一	1	一	1	一	1	
2	동화교주					一	2	一	2	二	2	
3	대법천사			一	1	一	3	二	3	三	3	
4	신공묘제허진군			一	2	一	4	二	4	四	4	
5	홍제구천사							三	5	五	5	
6	허정장천사									六	6	
7	정양허진군							四	6	七	7	
8	해경백진인	一	1	二	3	一	5	五	7	八	8	
9	낙양살진인	一	2	二	4	一	6	五	8	九	9	
10	주외등천군	二	3	三	5	二	7	六	9	十	10	
11	판부신천군	二	4	三	6	二	8	六	10	十一	11	
12	비철장천군	三	5	四	7	二	9	七	11	十二	12	
13	월배주천군	三	6	四	8	二	10	七	12	十三	13	
14	동원교주신조사	四	7	五	9	二	11	八	13	十四	14	
15	청미교주조원군	四	8	五	10	二	12	八	14	十五	15	
16	청미교주위원군	四	9	五	11	二	13	八	15	十五	16	
17	동원전교마원군	五	10	六	12	二	14	九	16	十六	17	
18	혼원교주노진군	五	11	六	13	三	15	九	17	十七	18	
19	혼원교주갈진군	五	12	六	14	三	16	九	18	十七	19	
20	신소전교종리진선	六	13	七	15	三	17	十	19	十八	20	
21	신소전교여진선									十八	21	
22	화덕사천군	六	14	七	16	三	18	十	20	十九	22	
23	왕(옥)부유천군	七	15	八	17	三	19	十一	21	二十	23	
24	영대천군									二十一	24	영일이 천군
25	임대천군	七	16	八	18	三	20	十一	22	二十一	25	
26	버문구원수	八	17	九	19	三	21	十二	23	二十二	26	
27	버문필원수	八	18	九	20	三	22	十二	24	二十三	27	
28	영관마원수	九	19	十二	25	四	23	十三	25	二十四	28	
29	도독조원수	九	20	十二	26	四	24	十三	26	二十五	29	
30	호구왕원수									二十六	30	호구왕구 이원수
31	호구고원수	十	21	十三	27	四	25	十四	27	二十六	31	
32	혼원방원수	十	22	十三	28	四	26	十四	28	二十七	32	
33	인성강원수	十一	35	十八	37			十五	29	二十八	33	
34	태세은원수	十一	36	十八	38			十五	30	二十九	34	
35	고교당원수	十一	37	十九	39			十六	31	三十	35	
36	풍도맹원수	十一	38	十九	40			十六	32	三十一	36	
37	(익)영은원수	十一	31	十六	33			十七	33	三十二	37	
38	규왕왕부수	十一	32	十六	34			十七	34	三十三	38	
39	선봉이원수	十一	33	十七	35			十八	35	三十四	39	
40	맹필철원수	十一	34	十七	36			十八	36	三十五	40	
41	풍환주원수	十一	23	十	21	四	27	十九	37	三十六	41	
42	지기양원수	十一	24	十	22	四	28	十九	38	三十七	42	
42	낭령관원수	十一	25	十一	23	四	29	二十	39	三十八	43	
44	충경(익)장원수	十一	26	十一	24	四	30	二十	40	三十九	44	
45	동신유원수	十一	27	十四	29			二十一	41	四十	45	
46	활락왕원수	十一	28	十四	30			二十一	42	四十一	46	
47	신뢰석원수	十一	29	十五	31			二十二	43	四十二	47	
48	감생고원수	十一	30	十五	32			二十二	44	四十三	48	

한자의 숫자(一二三)는 면(장)수를, 아라비아 숫자는 배열 순위를 나타낸다. 이 도표에서 48신장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쉽게 알게 되었다. 그 변모는 소위 진인과 천군, 조사와 원군, 진선과 원수 등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주와 천사 급의 보장을 의미한다. ‘안심사본’을 대본으로 삼아 요약한 『구천옥추경』의 신장 이름을 보면, 신장은 47신위가 된다.

다만 두 신장이 같이 묶여 있었던 데에서 다소 혼란이 생긴 것은 틀림없다. 신소전교종려진선, 영임2대천군, 호구왕구2원수 등을 한 신장으로 처리한다면 44신장이 되는 셈이다. 간혹 44신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꼭 48신장이어야 하는가?

중국도교협회부원구원 인즈화(尹志華, 국제부주임)가 발표한 「조선시대 『옥추보경』 중의 신장에 관한 연구」(『대순사상논총』 제22집, 2014)에 의하면,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청대 『옥추보경』 신장도는 45위이다.<sup>19)</sup> 보현사본의 흥제구천사와 정양허진군, 그리고 계룡산본 허정장천사 등이 빠져 있다.



[그림 14·15·16] 왼쪽 두 그림은 보현사본에서 보장된 신장이고 오른쪽 그림은 계룡산본에서 다시 보장된 신장이다. 계룡산 신장의 도상(icon)은 이전의 신장 그림과 차이가 없으나 다만 하늘의 배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19) 논문 수준에 관한. 전문가 심사 과정에서 48신장론에 연구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인즈화(尹志華)의 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이 글은 중국내에서 취급한 것이므로 제외할 것이고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이능화의 48신장론에 글 정도인데, 앞에서 취급한 대본이다.

‘48’이란 숫자에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망설일 필요 없이 불교와의 습합이라는 생각이다. 관용화된 불교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소위 48원과 48경계가 있다. 48대원이란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 때, 세자제왕 부처님의 처소에서 세운 서원이다. 서원은 일정하지 보통 섭법신원, 섭정도원, 섭중생원 등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48경계는 대승의 계율에서 가며은 48종의 금계이다. 10중금계와 함께 대승보살이 지니는 계를 말한다. 『옥추경』이 절(사찰)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 2. 48신장의 성격

우선 48신장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1) 교파를 중심으로 한 부류, 2) 천사와 천군 부류, 3) 진군과 지인 부류, 4) 원수와 부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제1 유형] 교주와 교파

1: 만법

1: 동화

1(2): 동현교주(신)조사 \*통현전교(마)원군

2: 청미:교주(조)원군/ -교주(위)원군

2: 혼원:교주(로)진군/ -교주(갈)진군

2: 신소:전교 종려진선

### [제2유형] 천사와 천군

천사: 3 대법/ 홍제(구)/ 허정(장)

천군: 8 주퇴(등)/ 판부(신)/ 비첩(장)/ 월패(주)// 화덕(사)/ 옥부(유)/ 영임(2대)

### [제3유형] 진군과 지인

진군: 2 신공묘제(허)/ 정양(허)

진인: 2 해경(백)/ 낙양(살)

### [제4유형] 원수와 부수

원수: 19 뇌문(구)/ 뇌문(필)/ 영관(마)/ 도독(조)/ 호구왕고(2)/ 혼원(방)/ 인성(강)/ 태세(은)/ 선봉(이)/ 맹렬(철)/ 풍륜(주)/ 지기(양)/ 낭령(관)/ 충익(장)/ 동신(유)/ 활락(왕)/ 신뢰(석)/ 감생(고)

이 정리에서 ( )은 신장의 성씨를 말한다.

제1유형은 교파를 중심으로 만법, 동화, 통현, 청미, 혼원, 신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묶으면, 정일교 계통이다. 만법종단이라고 하면, 부적(부록)파의 다른 이름이다. 용호산 천사파가 정일현단, 모산 삼모진군파가 상청법단, 각조산 갈선용파가 영보현단, 서산 허정양파가 정명종단 등이 그것이다. 후대 세 파는 세상에 적었는데 원 나라 때 천사로 작위를 받아 천하에 교세를 떨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삼산의 부적[부록]법을 용호산 천사부가 흡수하여 정일현단으로 고치면서 ‘만법종단’이 되었다.<sup>20)</sup>

참고로 정일도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일도는 중국 도교 후기의 양대[+ 전진교]파이다. 천사도와 용호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초를 두고 용호 중심으로 부록도파를 형성하여 큰 부록파가 되었다. 원대 중후기에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일도는 원 성종 대덕 8년(1304)에 장릉 38대 장여재를 ‘정일교주’로 봉한 데서 출발한다. 다시 ‘정일교주 주령3산부록’으로 수여하였다.

정일도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장릉 이후 상속자들이 수령이 되었다. 38대 천사 장여재는 대덕 8년(1304)에 ‘정일교주’로 봉해진 후 역대 천사들은 모두 이를 물려받았다. 장여재는 1316년(인종 연우 3년)에 죽었다. 연후 4년 상속자 사성은 39대[천사]가 되어 강남 도교의 영도를 승계하여 3산부록을 주로 영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40대 장사덕, 41대 장정언은 정일도 수령으로 지속적으로 수여하였다. 명청 시기에 천사 봉호가 비록 취소되었으나 교도들은 자연스럽게 수령으로 받아들였다.

2) 조직상으로 신구 각부록을 조합하여 완성하였다. 용호종, 모산종, 각조종, 태일도, 정명도와 신소파, 청미파, 동화파, 천심파 등 여러 작은 파가 있었다. 작은 파들이 큰 파에 융합되어 천사는 대중주가 되었

20) 중국도교협회·소주도교협회 편, 『중국도교대사전』 (북경: 화하출판사, 1995), p.123.

다. 그럼에도 작은 파들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전승되었다. 예를 들면 용호종, 정명도, 청미파 등은 청대에 이르기까지 각자 끊어지지 않고 전승되었다.

3) ‘정일경’이 공용으로 올리던 주요경전이 되었다. 주요 법술은 부적[화부], 신주[염주], 기원 푸닥거리와 재초[기양재초] 등은 사람들이 사귀를 쫓아내고 요귀를 항복시키며 복을 빌어 재앙을 물리쳤다.

4) 정일도시는 궁관에 머물지 않았다. 처자가 있고 자손을 두어 ‘화거도시’라고 불렸다. 궁관 규모는 전진도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었고 계율도 엄격하지 않았다.<sup>21)</sup>

신소파는 북송말에 형성하여 남송에서 원·명까지 이어졌다. ‘신소’의 어원은 ‘영보무량도인상품묘경’에서 나왔다. 고대의 천(하늘)은 ‘구소(九霄)’, ‘구중(九重)’이라고 했다. 9중 그 가운데 제1중이 ‘신소’이다.

신소파의 창시자는 왕문경(1093~1153)이다. 임영소(북송 도사) 장계선(1092~1127) 등이 형성되었다. 신소파는 오뢰법의 일을 전수하여 귀신에 관한 일이나 비가 오게 하는 것이며 해를 벗어나고 재앙을 면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왕문경의 뒤를 살수견이 이었다. 신소파는 강남에서 유행하였다. 남송 때의 금단파 남종 역시 오뢰법을 전하였는데 백옥섬(1194~?)의 「해경백진인어록」에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은 『옥추경』 집주본의 핵심이 되었다.<sup>22)</sup>

청미파는 남송 때에 형성하여 원을 거쳐 명초와 청초까지 전승되었다. 청청미파 도사들은 자기들의 도가 아주 옛날부터 있어서 원시천존부터라고 했다. 원시에 시작하여 옥신[대도군]과 노군에 제2의 전파가 있어서 원진, 태화, 관령, 정일의 4파가 되었다는 것이다. 10번째 소옹조원군[조서]에 이르러 또 한 번의 전기가 있었다. 황순신(1224~?), 송말 원초)은 청미파를 완성하여 집대성하였다.

21) 경희대 편, 『중국도교사』 I(성도: 사천인민출판사, 1996), pp.195-196.

22) 같은 책, pp.134-140.

동화과는 남송 초에 형성되어 원대까지 이르렀다. 동화과는 스스로 원시상제와 영보천존에서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 조사로 영보도사 서래륙, 갈현(164~244), 정사원, 갈홍(284~365) 등이라고 하였다. 육수정(406~477)에 이르러 그 종조가 되었다. 영보과는 남조에서 성행하였다. 당 이후에는 각조종으로 변모하여 양송 시기에는 모산종 용호종 아울러 3종이 되었다. 동화의 처음 창시자는 왕고와 전령허[명 사진]이고 창시자는 영전진(1101~1181)이다. 동화과는 원시상제와 영보천존이 최고의 존신이다.

혼원교는 『녀목암전』에 의하면 녀시중(1221~1295)의 천심도법은 확실히 송대와는 다르다. 1) 책을 얻었다는 북송 사람 요동천이 조사라고 기술되지 않고 남송사람 노시중이라고도 적지 않는다. 진(晉)나라의 태상노군이 받아서 노대안에게 전승하여 조사가 되었다. 2) 다시는 ‘천심정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혼원6천여의도법’이라고 불렀다. 아울러 호천상제의 명령을 받는 ‘개천뇌정지교’이다. 3) ‘도인경’은 중요 경전이다. 그 내용은 녀시중의 의거한 천심법인데, 요동천의 전사는 바가 아니고 또한 노시중의 계통도 아니다. 녀시중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소위 ‘혼원법’으로 송대 천심과 분파의 하나이다. 『도법회원』에 의하면 혼원개교는 대비보혜 노진군대안이고 혼원연교는 일기묘도 녀진인시중, 천은로진인, 선진녀사사진인, 천전장진인 등이다.<sup>23)</sup>

### 제 1·2유형 진인과 진군, 원군과 진선

진인은 이름난 도교 높은 도사[고사]의 칭호이다. 당 나라 이후에는 봉건 제왕들이 ‘진인’이란 칭호를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이름난 도사에게 수여하였다. 예를 들면, 당 현종(712~756)은 장주(BC 약 369~BC 약 290)를 ‘남화진인’으로, 송나라 도사 장백단(?~1082)을 ‘자양진인’,

23) 같은 책, p.133.

원 세조(1260~1294)는 구차기(1148~1227)를 ‘장춘연도교주진인’이라 봉작하였다. 1368년(홍무 원년)에 ‘천사’로 부르다가 이후 ‘대진인’, ‘진인’으로 불렸다. 명나라에서 수여되는 ‘진인’의 직위는 정2품, 청나라 초기에는 정3품이었다.<sup>24)</sup>

‘진군’은 신선길을 닦아 도를 얻은 사람을 말한다. 남도 도홍경(452~536)에 의하면 ‘좌경선후진군 허군’이라고 하였다.<sup>25)</sup>

원군은 여자 신선을 말한다.

진선은 먼저 내단의 약[소단연약]을 만들고 빈궁을 구제하며 주문[진언]과 부적[부록]을 만들고, 천도재를 올리는 도사를 말한다.<sup>26)</sup>

### 제 3유형 천사와 천군

천사는 ‘천사도’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여기서 천사도는 구도교의 주류로 후한 말기 태평도보다 약간 뒤늦게 성립되었다. 오두미교나 정일교라고도 한다. 창시자는 장릉(34~156)이다. 이 교단에서는 부적(부록)과 장초 즉 기도를 주로 하였다. 장릉의 교법은 아들 장형을 거쳐 장로(?~216)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장로가 위나라 조조(155~220)에게 정복되어 교단이 없어졌다. 장로가 죽은 뒤 아들 장성이 강서성 용호산을 본산으로 교법을 전하였다. 이후 5세기 전반에는 북위의 구겸지(363~448)가 천사도를 개혁하여 신천사도를 세웠다. 이 신천사도는 천사의 세습제와 타락한 남녀합기의 술 및 신도들에게 쌀·돈 등을 받치게 하는 제도를 부정하고 유교의 예를 존중할 것과 복이, 조식 등 신선설 계통의 장생법을 채용하였다.

천군은 뇌법에서 이름[명사]으로 마음과 몸[심신]을 말한다. 내련의 이름[명사]로는 원신을 말한다.

24) 중국도교협회·소주도교협회 편, 앞의 책, p.791.

25) 같은 책, p.792.

26) 같은 책, p.793.

## 제 4유형 원수와 부원수

신장은 불교의 용어이다. 불법을 보호하는 화엄신장을 말한다. 달리는 신병을 거느리는 장수 즉 귀신의 장수이다. 따라서 ‘원수’란 도교의 신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원수는 우두머리 장수를 말하며 군인의 가장 높은 계급이기도 하다.

도교 관련 문헌을 보아도 ‘원수’는 보이지 않는다. 태평교 창시자 장각(?~184)은 홍건을 일으켜 우두머리[영수]가 되었다. 장각은 177~179년 사이에 황건을 쓴 태평도의 무리들을 군사 편제로 바꾸었다. 36방이었는데, 큰 방은 10,000 사람, 적은 방은 6~7,000 사람이었다. 각 방은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천공장군’, ‘지공장군’, ‘인공장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군사 편제에서 원수와 부수가 불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 가지 신장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옥추경』이 종교의 경전으로 성립하면서 기존의 명성이 있는 신장들을 모두 정리한 느낌이 든다.

대표적인 것이 36천장이 그것이다. 48신장이 36천장과 대응되는 것은 구중희(2006) 『옥추경 연구』 ‘제9장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여타 신들, 2.천존의 권속 48신들’에 상세하게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서는 줄인다.

또 다른 보기는 동약십태보의 수용이 있다. 소위 온, 강, 양, 맹, 이, 철, 유, 장, 악, 주 등이 거의 원수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우두머리인 익령은원수를 비롯하여 인성강원수, 지기양원수, 선봉이원수, 맹렬철원수, 통신유원수, 충정장원수 등과 월패주천군 등이 배치되고 ‘맹’과 ‘악’만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래 동약대체는 민간신앙의 대상이다.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 도교에서는 풍도대제가 배치되는 것과 같다.



### 3. 48신장의 도상들(Icons)

신장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진인혹은 진선류의 문인형과 원수류의 무인형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문인형은 파초선과 불진을 들고 문인복장을 하고 있다.



<그림 17·18> 왼쪽은 해경백진인과 낙양살진이고, 오른쪽은 홍제구천사이다.

파초선의 경우 정양허진군, 해경백진인, 낙양살진인 등이 불진의 경우 홍제구천사, 허정장천사 등이 들고 있다. 『국조오례의』에는 가례 노부로 용부채[용선], 청부채[청선], 연꽃공작부채[연화작선] 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불진은 불교의 용어인데, 삼론종에서 8가지 아니 되는 바람으로 8가지 망진을 떨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청나라 황실의 노부로서의 불진도 있다. 황제, 황후, 왕세자 모두 불진이 있다.

무인형은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3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태세은원수, 영관마원수, 주뢰등천군 등일 것이다.

태세은원수는 우선 팔이 4개이다. 4개 손은 각각 가진 것이 다르다. 2개의 왼손에는 해[태양]와 금강저를 오른손은 창과 亞(아)자형 신장 부적[부록]을 들고 있다. 금강저는 원래 고대 인도의 무기이다. 밀교에서는 번뇌를 부수는 보리심의 상징으로서 승려들이 수행할 때 쓰는 도

구이다. 금·은·동·철·나무 등으로 만들며 뾰족한 끝을 가졌으며 모양에 따라 나눈다. 하나인 것이 독고, 세 개인 것이 3고, 다섯 개인 것이 5고라고 한다. 각기 법계, 세 가지 비밀[삼밀], 세 가지 몸[삼신], 다섯 가지 지혜[오지], 다섯 부처[오불] 등을 나타낸다고 한다. 독고저, 3고저, 5고저, 보저, 탐저 등을 5종저라고 하며 5종령과 같이 둔다. 또 금강저는 보리심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갖지 않으면 불도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조선]의 해와 달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지만, 청나라의 것은 해[신장의 왼손]와 달[오른손]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우리나라 신장은 오른손에 무차(武叉)를 들고 있지만, 중국 신장은 문차(文叉) 즉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림 19·20> 왼쪽은 우리나라의 태세은원수이고 오른쪽은 중국의 것이다.

영관마원수는 얼굴과 눈이 각각 3이고 팔이 좌우 6개이다. 삼안영광, 화광천왕, 마천군이라고도 부른다. 세 차례의 출생한 비밀이 있다. 화광대제 마영관은 또 왕영관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신수신기』와 『통속편』에 의하면, 송나라 휘종(1100~1125) 때, 술사인데 이름이 왕선이다. 측나라 살수건의 부적법을 가진 임영소의 제자였다고 한다.



<그림 21> 신장 맨 위의 왼손은 금강저, 가운데와 맨 아래 왼손은 채찍(鞭)을 들고 있다. 맨 위의 오른손의 亞자형 부적을 가운데 손은 검을 맨 아래의 손은 긴 창(자미대제의 진요창을 훔쳐서)을 들었다.

장흥발의 『도교신선신앙』(2001)에 의하면, 도교의 4대 호법신으로 1) 마·조·운·주 등의 대장, 2) 악·조·운·강 등의 원수, 3) 진군으로 불리는 4원수 등이라고 한다.<sup>27)</sup> 그러면서 장흥발은 4대호법신을 마·조·운·관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장들이 맨발이거나 신발을 신은 모습은 문인형과 무인형이 같다. 그러나 문인형은 문인의복 모습을 하고 무인은 갑옷과 창 등 무기를 가지고 있다.

## VI. 결론

『옥추경』에 나타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권속 48신장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송나라 말기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이 지어진 이래로, 원나라 때인 1333년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

27) 장흥발 편, 『도교신선신앙』(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북경시 연전자출판사, 2001), pp.284-294.

존옥추보경 집주』라는 주해집이 나왔다. 이때에는 신장들은 없었고 후대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신장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신장’은 『옥추경』에서는 천사, 진인, 원수 등으로 쓰였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다. 신장론이 처음 제기될 때에는 41신장부터 시작하여 47신장까지 발전했다가 1888년 48신장으로 굳어진 것이다. 48이란 숫자는 불교의 48대원과 습합된 결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옥추경』의 판본은 ‘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추경』이 조선 후기 사회에 귀신을 녹이는 경문(삭사鑱邪)으로 널리 알려져 유사한 경문들을 양산해냈다. 『옥추경』은 원래 왕실에서 쓰이던 나라의 경문이므로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신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3: 6판.  
대순진리회, 『주문』 서울: 대순진리회 수도부.  
김홍무 간행, 『구천옥추경』, 진안: 반룡사, 1612.  
마뇌경방,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 소성: 마뇌경방장판, 1895.  
서거정 외, 『동문선』  
서경, 『고려도경』  
안심사, 『그림 옥추경』 [화옥추경], 1570, 초판.  
\_\_\_\_\_, 『그림 옥추경』 [화옥추경], 1570, 수정판.  
여암 종리권 편, 「옥추보경 집해」, 『도장집요』, 제63책.  
이서월 편, 『옥추경약해』, 도학13경, 청나라 시대.  
장계우 편, 『중화도장』 제1권~제49권, 북경: 화하출판사, 2004.  
장사성 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1333.  
진중원 간행, 『광성의제 옥추진정선경 전집』, 성도: 2선암 장판, 1912.  
황일연 발문, 『옥추보경』 (전), 계룡산본, 1888.  
갈조광, 『도교와 중국문화』, 심규호 옮김, 서울: 동문선, 1993.  
경희태 편, 『중국도교사』 I-IV(수정판), 성도: 사천인민출판사, 199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민속대관』: 종교와 민간신앙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구중희, 『충청도 설위설경』, 공주: 금강민학회, 2002.  
\_\_\_\_\_,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_\_\_\_\_, 『정책문화와 역사』, 서울: 민속원, 2009.  
김승동 편, 『도교사상사전』 개정판,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김영진, 「옥추보경 해제」, 『도령부신연구』, 서울: 민속원.  
리원구어(李遠國),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마서전, 『중국도교의 제신』, 대만: 단결출판사, 1996.

-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대순사상논총』 21, 2013.
- 와덕충, 『도교와 신선의 세계』, 정순일 옮김, 서울: 법인문화사, 1992.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상·하.
- 이능화, 『조선도교사』, 이종은 옮김, 서울: 보성출판사, 2000.
- 인즈화(尹志華), 「조선시대 『옥추보경』 중의 신장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장흥발 편, 『도교신선신앙』,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북경시 연전자출판사, 2001.
- 중국도교협회·소주도교협회 편, 『도교대사전』, 북경: 화하출판사, 1995.
- 최병두, 『상밀주해 옥추보경』, 서울: 한림서원, 1923.
-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의 한국적 수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 황병진 옮김, 『그윽한 하늘의 소리』(옥추보경), 서울: 대흥기획, 1991.

▪Abstract▪

## The Evolution and Icons of 48 Divinity in Ogchugyeong(玉樞經)

Jung-Hoe Koo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tarts based on the purpose to investigate the evolution and nature of 48 divinity depends on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Highest ruling Entity and Majesty of Heaven by lightning and thunder raising and ruling all the universe which response to the Supreme) as well as to look at the iconography of that. Ogchugyeong(玉樞經) still exercise enormous influence on Korean folk belief neith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or till now. The reason for authority of Ogchugyeong(玉樞經) is because Ogchugyeong(玉樞經) was the sutras of being used in the original royal families

48 divinity depends on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which appears in Ogchugyeong(玉樞經) is created in Korea. 48 divinity is finally approved at 1888, after it started from 41 at the beginning of the deity general theory(神將論) through developing 47. The figure of 48 seems the result of the syncretism with 48 wishes of Buddhism.

Okuchugyeong was originally China Taoist scripture, but Okuchugyeong

entered Korea and reproduced a different look. In China Okuchugyong has two volumes and 44 stature of the deity general(神將) but in Korea Okuchugyong changed to have three volumes and 48 stature.

**Key words** : Ogchugyeong(玉樞經), 48 divinity,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the Deity General(神將), 48 Wishes of Buddhism

- ◎ 투 고 일 : 2015년 4월 20일
- ◎ 심 사 기 간 : 2015년 4월 28일~5월 3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5월 21일